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
담당 : 캠페인 그룹장 전인호 부단장 010-2045-9608

대한민국 남녀노소, 전 국민이 부르는 나를 위한 합창 - 김영희C센터 TV 광고 제6탄 ‘나를위해’ 편 공개

- 대립과 분열, 비난과 네거티브가 아닌 오늘의 ‘나’, 내일의 ‘나’ 를 위한 노래
- 후보가 주인공인 선거 광고가 아닌 ‘나’ 를 위한 이야기를 담아
- 경쾌한 리듬감속에 ‘내 삶을 위한 정치’ 하는 메시지 전달

○ 국민의 요구를 잘 듣고 해결하는 실천이 이재명 후보의 경제임을 보여줬던 전편 TV 광고에 이어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TV 광고가 공개됐다.

○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영희C센터(홍보소통본부)는 정치OTT 영상플랫폼 ‘재밍’ (www.jaeming.com), 이재명TV, 그리고 텔레민주를 통해 TV 광고 제6탄 ‘나를위해’ 편을 공개했다. ‘나를위해’ 편은 이날 저녁 22시 40분 KBS2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이번 편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남녀 국민이 등장해 나만의 희망과 소망을 노래한다. 무거운 짐을 덜어 줄 정치, 혹시 실패해도 용기를 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줄 정치,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준비할 정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바라는 바로 ‘나’ 의 이야기다. 그래서 화면 속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오천만의 ‘나’ 다. 기존 선거 광고의 주인공이 후보라면,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또 하나의 광고 문법 파괴다.

○ 또한, 등장인물들은 선거하면 떠오르는 대립과 분열, 비난과 네거티브를 얘기하지 않고 경쾌함 속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 나를 위한 정치를 요구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김영희 센터장은 “지금 국민은 대립과 분열, 폭로와 검증, 네거티브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나를 위해’ 희망을 노래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를 찾고 있다” 며, “ ‘알잖아 봤잖아 기대해 나를 위해’ 라는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면, 나를 위한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뿐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이원일 총괄단장은 “어렵고 힘든 나를 위해, 꿈 많은 나를 위해, 내일의 나를 위해, 나를 위한 정책,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라며, “함께 앞으로 제대로 당당하게 끝까지 가자는 서로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이번 6탄 광고는 Song 광고라는 특징을 살려 TV 광고 뿐만 아니라, 라디오 소재로도 제작되어 방송된다.

- 지금까지 공개된 TV광고는 정치OTT 영상플랫폼 ‘재밍’ (www.jaeming.com)과 이재명 TV 그리고 텔레민주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끝)

첨부 : 이재명 후보 TV 광고 제6탄 '나를위해' 편 전문 및 이미지컷

NA)

나,를,위,해

SOON, 자막)

내 애길 들어줘

무거운 짐 덜어줘

용기내 도전하게

힘껏 밀어줘

좀 더 공정하게

억울하지 않게

경제, 현실 딱 떨어지게 정리해줘

오늘 내게 필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건

나를 위한 약속

나를 위해

내일을 위해

앞으로 제대로 가자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한 나의 선택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앞으로 가자 제대로 가자

날 위해 당당하게 끝까지 가라

진짜 해결해 길을 제시해

알잖아 봤잖아 기대해

나를 위해

자막)

꼭, 투표로 지지해 주십시오!

3월 4일, 5일 사전투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뽑는 날

NA)

나를 위해

기호1번 이재명

